

< 제 12 장 >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장이다. 이제 모든 흐름은 십자가를 향해 집중되며,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 위에 선 인류를 향한 최종적 권면이 담겨 있다.

요 12:12-19 예루살렘 입성 — 왕의 길과 십자가의 길.

(참조. 마21:1-11 막11:1-11 눅19:28-40)

1. 일요일 : 나귀 타시고 입성. 헤롯성전을 돌아보시며 탄식하심.
2. 월요일 :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성전을 정화하심.
3. 화요일 :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권세에 대한 논쟁.
4. 수요일 : 활동 없음
5. 목요일 : 제자들과의 만찬과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
6. 금요일 : 체포되시어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심. (AD30년 4월 3일 3pm)
7. 일요일 : 부활하심. (AD30년 4월 5일 유대력에 의해 학자들의 고증)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는 스가랴 9:9의 성취이며, 무력으로 오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오시는 왕의 모습이다.

군중은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으나,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성전을 둘러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권세자들과 논쟁하시며,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뒤 겿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입성은 환영이었지만 종착지는 십자가였다. 왕으로 오셨으나, 왕좌는 십자가였다.

이제 왕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로 이어진다.

요 12:20-43 죽음을 통한 구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뵈고자 하였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언하신다. 여기서 “영광”(δόξα)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제 사역은 절정에 이르렀고, 그 절정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영광이었다.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확장의 통로이며,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번식이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하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생명이 열리는 자리이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린다”(ἰψωθῶ)는 십자가에 달림과 동시에 높임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중심이며,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죽음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며,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해 오셨다.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순종의 절정이다.

31절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는 단지 개인 구원을 넘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우주적 전환점이다.

36절 “너희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제 마지막 권면이 주어진다. 더 이상 설명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이다. 믿으라. 빛을 받아들이라. 지금이 그 때이다.

요 12:44-50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선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다시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 구원과 심판은 같은 말씀 앞에서 갈라진다.

46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믿는 자를 심판의 때까지 사탄의 권세 아래 머물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은혜를 의미한다.

47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심으로, 요3:17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구원의 주로 오셨음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믿음을 촉구하신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심으로, 그 구원의 초청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신다. 결국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로서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메시아의 결단과, 그 앞에 선 인간의 선택을 동시에 보여준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그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만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호하는 무리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서 결정된다.

〈예수님 고난주간 사건〉

요일	장소	내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고
일요일	베다니	예루살렘입성	21:1-9	11:1-10	19:29-44	12:12-19	
		나귀타고 입성. 백성들의 환호.					
		헬라인과 대화				12:30-36	
월요일	베다니	무화과나무 저주	21:18-22	11:12-26			
		성전정화	21:12-13	11:15-19	19:45-48		
		병자 치유	21:14-17				
화요일	예루살렘	예수 권위시험	21:23-27	11:27-33	20:1-8		
		비유설교	21:28-25:46	12:1-13:37	20:9-21:38	12:37-50	
		유대인들의 모의	26:1-5	14:1-2	22:1-2		
		가롯 유다 변심	26:14-16	14:10-11	22:3-6		
수요일	기 록 없 음						
목요일	예루살렘	최후의 만찬	26:20	14:17	22:14-18	13:21-16장	
		제자들 발 씻김	4:32-42			13:2-17	
	감람산	겻세마네기도	26:36-46	14:32-42	22:40-46	17:1-26	
금요일	감람산	주께서 잡히심	26:47-56	14:43-52	22:47-53	18:2-12	
	예루살렘	안나스/가야바심문	26:69-75	14:53-65		18:2-12	
		베드로의 부인	26:69-75	14:54-72	22:54-62	18:15-18	
		가롯 유다 자살	27:3-10				행1:18
		열시 당하심	26:67-27:30	15:16-19		19:16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	27:31-61	15:20-47	23:26-56	19:17-42		
일요일	갈보리	부 활	28:1-20	16:1-18	24:1-49	20:2-21:25	
	감람산	승 천		16:19-20	24:50-53		행1:4